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27일 플레이오프...삼각편대 뜬다

강경민·원선필·송혜수 공격 선봉...부산시설공단-SK 승자와 맞대결 감염 11명 모두 복귀 완전체 출격...오세일 감독 "챔피언 결정전 같 것"

"플레이 오프 승부에 최선을 다해 챔피언 결정전까지 진출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2년 연속 광주도시공사 핸드볼을 포스트 시즌으로 이끈 오세일 감독은 오는 27일 오후 6시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플레이 오프 경기를 앞두고 이 같이 밝혔다.

정규리그 2위로 시즌을 마감한 광주도시공사는 부산시설공단(3위), SK슈가글라이더즈(4위) 승자와 플레이 오프를 치른다. 정규리그 1위는 삼척시청이다.

광주도시공사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새로운 공격패턴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다. 이미 정규리그를 치르는 동안 작전과 전술운용 등 팀컬러가 모두 드러난 상태 때문이다. 다만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산시설공단, SK슈가글라이더즈 전력분석을 바탕으로 한 투 트랙 작전과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의 자산인 공격과 수비도 가다듬고 있다.

핵심자원인 주포 강경민, 원선필, 송혜수 등 공격진은 현재 최고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을 축으로 공격루트를 개척한다는 복안이다.

수비의 핵심 골키퍼도 든든하다. 한때 팀을 떠났

다 올시즌 복귀한 박조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세일 감독은 "박조은이 시즌 내내 높은 방어율과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선수단에 활력을 넣었다"며 "플레이오프 선발로 출장시켜 뒷력을 지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이 코로나19 악몽에서 모두 벗어났다는 점도 팀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선수 15명 가운데 무려 11명이 감염돼 리그를 어렵게 소화했지만 최근 모두 격리에서 해제돼 '완전체'로 팀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오 감독은 "플레이오프가 큰 경기인데다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담을 느낄까 우려된다"며 "두번째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만큼 선수들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경기를 즐기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홈경기 팬들이 많이 찾아와주셨으면 한다"면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선수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정규리그 4위라는 최고 성적을 거뒀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통합 3위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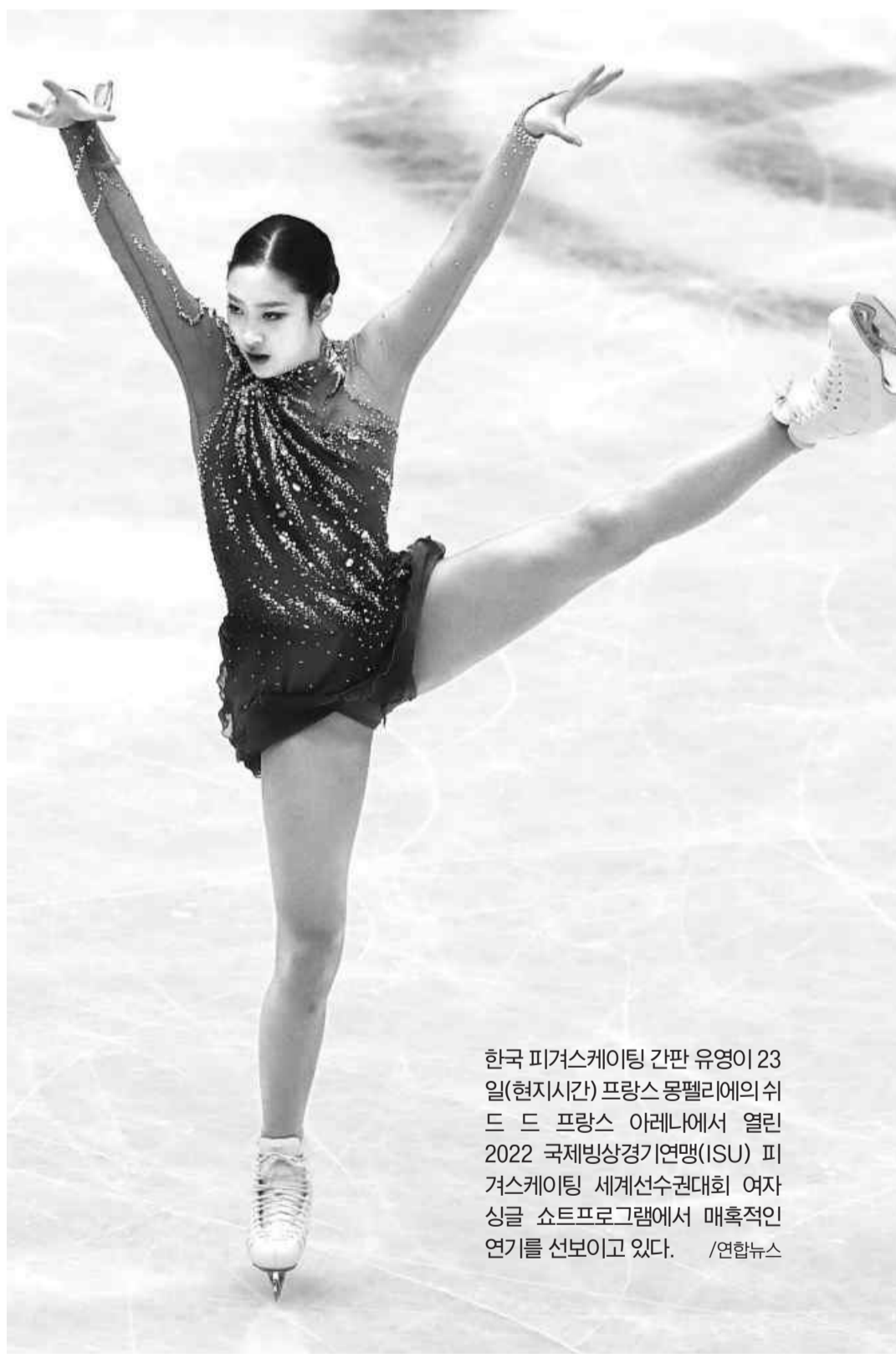
강경민



원선필



송혜수



한국 피겨스케이팅 간판 유영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몽펠리에의 쉬드 드 프랑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매혹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유도 이혜경·박다솔·김지정 AG 간다

대한유도회 태극마크 선발 안바울 등 남녀 14명 출전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유도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이혜경(48kg급, 광주도시철도공사), 박다솔(52kg급), 김지정(63kg급, 이상 순천시청) 3명이 포함됐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23일 서울올림픽테니스경기장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를 선발했다.

한국은 2020 도쿄올림픽 남자 66kg급 동메달리스트인 안바울(남양주시청)을 포함해 남녀 14체급 14명의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그동안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은 대거 빠졌다. 도쿄올림픽 남자 100kg급에서 은메달을 딴 조구함(KH그룹)은 무릎 부상으로 선발전에 불참, 아시안게임 출전 명단에서 탈락했다.

도쿄올림픽 남자 73kg급 동메달리스트 안창립은 지난해 12월 은퇴했다.

대표팀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남자 90kg급 곽

동환(포항시청)은 선발전에서 밀렸다.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 중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승선한 선수는 안바울과 남자 100kg 이상급 김민중(용인대), 여자 52kg급 박다솔(순천시청), 여자 70kg급 한희주(KH그룹), 여자 78kg급 윤현지(안산시청) 등 총 5명뿐이다.

한희주는 기존 63kg급에서 70kg급으로 체급을 올렸다.

한편 이날 대한유도회는 오는 6월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제31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출전 선수도 선발했다. /연합뉴스

피겨 유영 세계선수권 쇼트4위...첫 메달 보인다

총점 72.08로 시즌 최고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6위를 기록한 유영(18·수리고)이 세계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4위를 차지했다.

유영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몽펠리에의 쉬드 드 프랑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8.04점, 예술점수(PCS) 34.04점으로 총점 72.08을 받아 33명 중 4위에 올랐다.

처음으로 이 대회에 나선 유영은 자신의 쇼트프로그램 공인 최고점(78.22점)을 깨지는 못했지만, 시즌 최고점을 달성하며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합계 경기에 나선 이혜인(17·세화여고)은 기술점수(TES) 32.33점, 예술점수(PCS) 31.83점, 총점 64.16점으로 11위를 기록했다.

세계선수권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로 올림픽 다음으로 큰 국제대회다.

유영은 이번 대회에서 첫 메달을 노린다. 한국 선수 중에서 지금까지 김연아(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가 유일하게 세계선수권 메달을 목

에 걸었다.

여자 싱글에서 강세를 보이는 러시아 극적 선수들이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징계를 받아 출전하지 못하면서 유영의 메달 획득 가능성은 더 커졌다.

33명 중 32번째로 은반에 선 유영은 드라마 '레프트오버' (The Leftovers)의 사운드트랙(OST)에 맞춰 연기를 펼쳤다.

유영은 첫 점프에서 '필살기' 트리플 악셀 대신 더블 악셀을 댄 후 트리플 러츠-트리플 도우루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매끄럽게 처리했다.

플라잉 카멜 스핀과 레이백 스핀을 연이어 수행한 그는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플립까지 실수 없이 처리했고, 스텝 시퀀스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으로 경기를 마쳤다.

쇼트프로그램 1위는 80.32점을 기록한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사카모토 가오리(일본)가 차지했다. 루나 헨드릭스(벨기에)가 75.00점으로 2위, 마리아 벨(미국)이 72.55점으로 3위다.

쇼트 프로그램 상위 24명이 진출하는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은 한국시간으로 26일 오전 2시부터 진행된다. /연합뉴스

27일~4월 7일 강진서 전국 춘계럭비 리그전

대한럭비협회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강진 하멜럭비구장에서 '2022년도 전국 춘계 럭비 리그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럭비협회가 주최하고 전남럭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6세 이하부 9팀(12인제)과 19세 이하부 12팀(15인제), 대학 B부 3팀(15인제)이 참가한다.

대한럭비협회는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와 더불어 올해부터 관중석을 개방해 오프라인으로도 럭비 대중화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최윤 대한럭비협회장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억3000만원 규모의 대회 진행 비용 전액과 럭비 경기장 등을 지원해주신 강진군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와 운영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 전 경기는 '대한럭비협회 유튜브'(Korea Rugby Union)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뜨거운 피
- 2관 뜨거운 피
- 3관 극장판 주술회전 0, 더 배트맨
- 4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5관 뜨거운 피
- 6관 극장판 주술회전 0,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9관 문물
- 7관 씨네캐플 스펜서, 메리 미, 언차티드
- 8관 씨네캐플 리더링 러브, 벨파스트, 에펠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
일시 : 2022.04.27.(수)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